



소말리아에 한국 열심고 귀국

- 한국군의 우수성 과시 및 국위선양에 커다란 기여



지난 93년 7월 29일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군 최초로 소말리아에 파견되었던 상록수부대 본대(대대장 중령 張楨勳)가 94년 1월 12일 출발한 2차파견 부대와 교대후 1월 15일 아침 무사히 귀국하였다.

상록수 부대는 UN군과 소말리아 군벌세력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상황속에서,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열대성 기후와 풍토병등 열악한 주변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UN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여, UNOSOM II 사령부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PKO부대로 평가받아 한국군의 우수성 과시는 물론 국위선양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또한 현지에서 각종 도로공사 및 관계수로공사등을 비롯하여 경찰서건물보수, 학교 건물보수, 사랑의 학교운영 등 대민지원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빌라드지역 주민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한편 李柄台 국방장관은 이 날 오후 3시 국군체육부대에서 軍 관계자와 가족 친지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환영식 자

리에서 열사의 땅 소말리아에 한국의 열과 우정을 깊이 심어놓은 이들의 업적을 높이 치하 하였다. *



동남아시아 방산시장 개척활동 전개

- 한국방위산업체 대표단 동남아 국가 방문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군비증강이 활발한 동남아 국가에서의 방산 물자 수출 시장개척과 업체간 방산기술협력 기회 모색 및 정부의 방산·군수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업체대표들로 방문단(정수열 방산진흥회 상근부회장 외 14명)을 구성하여, 구랍 6일부터 15일까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 3개국의 방산관련 단체 및 업체를 방문하여 협력 증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태국,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은 근래 고도성장이 이룩하고 있는 자원부국일 뿐만아니라, 군 현대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한국 방산품의 최대시장이며, 향후에도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조직화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때 가장 중요한



동남아 시장으로 개척될것임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기술이전등 상대국의 방산육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할때 국내시장에 국한된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외로 진출할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는 커다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明)

상공자원부와 방산업체간 업무설명회 가져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상공자원부와 협의하에 방산업체 실무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랍 23일 방산진흥회 회의실에서 방위산업체의 품질관리활동방안과 기술력 증대방안, 그리고 방산업체지정을 위한 시설 기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는 상공자원부 俞永基 항공방산과장이 우리나라 기술도입의 문제점과 기술개발추진방안을 설명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시 구비해야할 시설기준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이에 대한 토의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방산업체와 상공자원부는 상호간 신뢰증진 및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게 되었다. (明)

